

* 정답은 문항 옆에 붙어 있는 미주 번호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6) ①

(가)는 눈 내리는 강의 정취를 관조적으로 표현해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다)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체적이고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가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물과 밀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에 비해 (다)의 화자가 대상과의 거리가 멀다는 ①은 적절한 설명으로는 보기 어렵다.

27) ④

(가)의 작품은 '산-길-배-낙시질'의 시선 이동을 통한 시상 전개방식으로 외부세계와 단정된 노인의 모습을 통해 고독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사람흔적'은 '늙은이의 살아온 삶의 흔적'이 아니라 외부세계와 단정된 적막함을 드러내기 위한 시어이기 때문에 ④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28) ③

<보기>의 내용은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느끼는 '마음 안의 풍경'이 고전 시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잣대가 됨을 언급하고 있다. '야외(野外)'는 화자의 마음 속 풍경을 떠올려 주는 실제 풍경이 아니라 속세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③은 올바른 해석으로 볼 수 없다.

29) ④

<보기>는 시조의 형식이 지닌 의미에 관한 것. 3장 형식의 기능과 그 형식이 지닌 창작 면에서의 용이성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유추해 낼 수 있는 생각은 시조의 정형성을 전제로 한 효과에 주목한 것이어야 한다. ④는 형식 창안의 어려움에 관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0) ①

(다)는 봄산의 경치를 즐기는 시적 화자의 흥겨움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선인들의 삶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와 유희적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기러기가 슬퍼 운다'는 표현은 전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기는 하지만 시적 화자의 비애의 정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①은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31) ②

죽은 스승과 예술관이 달랐고 그 결과 자신만의 예술적 성취를 위해 노력한 점은 드러나나 ②와 같이 스승의 곁을 떠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32) ①

이 소설의 주인공인 '고죽'은 자신의 작품들을 분류하면서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예술세계에 부합하는 작품이 단 한 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로 인해 고죽은 절망하게 된 것이다. ①은 오랜 시간 자신이 추구했던 노력이 세속의 번뇌로 인해 성취되지 못한 절망감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심리가 유사하다.

33) ③

이 소설에서 '고죽'은 자신의 작품을 불태우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토록 원했던 만족스러운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의 수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백시'나 '난초' 같은 데서는 기교만 닦았으므로 부정한 것이나, 석담의 눈을 갖게 되면서 왼편으로 작품을 놓게 되었다는 점에서, 또는 자기류는 자신만의 경지인데, 스스로를 교졸함과 천격함으로 평가한다는 부분 등에서 이를 잘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34) ③

<보기>의 관점은 예술가가 창작한 예술품의 평가는 작가가 아니라 일반 대중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작품을, 그것도 오랜 기간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아왔던 작품들의 예술적 가치를 창작자가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관점이 <보기>의 적절한 비판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정답은 ③이다.

35) ④

고죽은 자신의 평생 작품 하나하나를 엄정히 평가하면서 스스로 자평(自評)을 내리고 있는데, 문맥을 고려하여 그 자평의 의미를 유추할 때 가장 타당한 것은 ④이다. 왜냐하면 전후 관계로 볼 때, 고죽은 평생 자신만의 기교를 발전시켰으나 그 속에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실토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36) ④

[A]는 심생과 처녀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37) ④

[B]에서 처녀가 여종을 안방으로 보낸 것은 자물쇠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38) ⑤

처녀 역시 심생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으나, 사회적 규율 때문에 그 심정을 직접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에서 처녀는 심생의 청을 거절하였으나 속으로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39) ⑤

심생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처녀는 사회적 제약 때문에 그의 사랑을 거절한다.

40) ②

언론의 범죄 보도를 화제로 하여, 피의자의 초상권에 관한 개념이 무엇인지 언급한 다음,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언론의 자유가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 나가고 있다.

41) ①

[A]에 설명된 내용을 바탕으로 표를 완성하면 된다. 인격권이란 타인이 어떤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이를 공표할 수 없다는 권리를 가리키므로 ㉠에는 '무단 촬영·공표 금지'가 적절하다. 한편 재산권이란 동의 없이 광고 등에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권리를 말하므로 ㉡에는 '초상 사용의 독점'이 적절하다. 인격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법적 구제 방법으로는 '명예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적절하다.

42) ③

B]부분은 법원의 판결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보도를 통해 알려주어야 할 권리(알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권을 우선시할 수 없다는 사실, 현행법으로 체포되는 경우이지만 초상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다. 아무리 경찰과 동행하여 취재했다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른바 면책(免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오답피하기 : ④ 범죄 보도가 공익을 위해 알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불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곧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다.

43) ①

범죄 사실은 언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보도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언론계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으므로, 비유적 의미로는 '부메랑(boomerang)'이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② 아킬레스건(腱)은 발뒤꿈치의 뼈 위에 붙어 있는 힘줄로서, 인체에서 가장 강한 힘줄이며 보행 운동에 중요한

부위이다. 이는 치명적인 약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

44) ⑤

이 글에서는 범죄 보도의 사회적 기능(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언론의 윤리(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언론 윤리에 부합해야 함)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 보도에 대한 시청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③ 언론의 자유가 자칫 초상권의 훼손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④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무단 촬영·보도, 승낙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보도, 몰래 카메라를 동원한 촬영·보도 등 여러 유형들이 두 번째 문단에 잘 드러나 있다.

45) ④

이 글은, 사진이 정지된 한 순간의 이미지를 담은 기록물이지만 상징성이 매우 강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이를 글쓰이는 '세계와 관계를 맺는 통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④는 사진을 통해서 세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근거(즉, 사진의 속성)를 밝힌다는 의미로서, 글의 중심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46) ②

이 글에서는, 사진에는 찍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의 의도가 담기게 되고 또 이미지의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이나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②는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단지 그 구도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으므로, 사진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글의 논지에서 벗어나 있다.

①은 태극기와 건물의 상징성에, ③은 찍은 사람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④는 사진 속 장면의 과거 사건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으며, ⑤는 사진의 기록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있으므로, 사진을 통해 세상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이 글의 논지에 부합한다.

47) ②

A에 들어갈 내용은, 사진이 세계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처럼 사진은 한 순간의 모습만을 담을 수가 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이 한 순간의 장면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사진의 장면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지니지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닌다. 바로 이 점이, 찍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는 것과 함께, 사진이 세계를 잘못 이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48) ④

사진을 '상형 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진과 상형 문자가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공통점들은 ㉠의 앞부분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미지를 담은 기록물이고, 이미지를 기호 형태로 저장하며,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영상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상형 문자는 과학 기술 발전의 산물은 아니므로, ④는 그 공통점에 포함시킬 수 없다.

49) ④

㉠에서 '대체물'은 사진에 찍힌 대상을 대신하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사진이 이런 기능을 하려면 대상이나 사건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④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창조한 모습이므로, 현실 속의 어떤 대상을 대신할 수는 없다.